

CSES ISSUE BRIEF

스타트업은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주역이다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이고,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도 기존 법률을 넘어선 사례들이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법체계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포지티브 규제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규제로 재단할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되어 사업전개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그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면, 혁신적인 기업을 수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정지시키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regulation sandbox)”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샌드박스라는 것은 일종의 모래 놀이터로서 제한된 영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샌드박스를 설정해주고 그 영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규제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적 비즈니스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책으로서 가치가 높다.

현재의 스타트업 판도는 밀림 속 적자생존의 현장과 같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스타트업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든지,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사업자가 되든지, 혹은 프리미어 사업자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스타트업의 참여자들이 철저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어떤 시장에서 어느 기술로 대처해야 하는지, 남들이 전혀 모르는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치열하고 험악한 판국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임팩트 투자’라는 자본의 새로운 역할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성공한 스타트업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으며, 그 사회적 가치를 감당할 신생기업들에 투자해서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확대를 넓히고 싶어한다. 이는 분명히 시대적 대세를 따르려는 자본의 지혜이다. 자본도 이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할 정도라면 스타트업도 더욱 사회적 가치에 가깝게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기업이 단순히 부(富)를 만드는 기구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도구로 변모하는 대전환, 즉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타트업을 통해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저자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tudies

손동원

손동원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C-Davis) 방문교수(역임)
-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현)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역임)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기획처장(역임)
- 한국 복잡계학회 회장(역임)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현)

사회적가치연구원

스타트업은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주역이다

들어가며

인공지능, 로봇공학,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하지 못한 창조적 혁신을 선도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 때문이다. 흔히 스타트업은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사회적경제조직과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스타트업도 외형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낳는 주체라는 점에서 두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전 시대에 충족되지 못했던 “미충족 니즈(unmet needs)”를 파고들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삶의 편익(benefit)을 높이고 있다. 외형적인 목적이 명시되었든,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묻어있든 스타트업이 사회적 가치와 맞닿아 가고 있는 현실은 주목할 가치가 크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2011년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잡지는 IBM기업과 카네기재단을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비교한 바 있다. 영리기업인 IBM가 공익사회기관인 카네기재단을 비교한 이유는 두 조직이 1911년에 탄생해서 같이 10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IBM기업과 카네기재단이라는 두 조직을 놓고,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던진 질문은 100년동안 과연 누가 더 사회적 임무를 잘 수행했는가였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초기 전반기 50년은 카네기재단이 사회적 목적 수행에서 앞섰지만, 후반기 50년에는 IBM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IBM이 이윤을 추구했지만 기술 발전을 따라잡고 사회구성원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기에 이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렇듯, 양질의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주역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회적 가치 확대의 첨병으로서 스타트업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과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기업가정신 확산과 정책지원이라는 두 요인이 중

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 가슴속에 기업가정신이 온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부의 확보 등의 통합적 목적을 갖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실업이 10%선으로 치닫고 있고 중장년층도 인생 이모작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 시절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8년부터 시작된 중고교에서의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은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의 방법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국가적 대기확으로 인식하고 더욱체계적이고 진정으로 의미를 살리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 현장에서도 코치를 양성하는 코칭 스쿨이 존재하듯이, 중고교 기업가정신 코칭을 위한 스쿨과 학습기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의지도 중요하다. 스타트업이 한 그루 나무라면 스타트업 생태계는 숲이다.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원리를 동시에 봐야만 한다.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스타트업에게 어떤 방식의 정책지원이 최선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확실한 것은 스타트업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는 사실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의미는 우량 종(種)과 불량 종(種)이 구별되는 차별화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우량한 스타트업과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을 차별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지원이 모든 스타트업에 평등하게 지원되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등장하고 양질의 스타트업이 오히려 차별되는 역선택(reverse selection)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건강한 창업생태계는 진정으로 우량한 스타트업이 선별되어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생태계이다. 이런 생태계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미래 진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규제철폐’도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로봇, 초지능화 및 초연결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존 질서에 한정된 법률체계 및 규제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의 벽을 낮추자는 주장이 높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4차산업과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